

CONTENTS

- 1. 국내펀드 동향
- 2. 해외펀드 동향
- 3. 현금유출입 동향
- 4. 변액보험 동향

<국내펀드>

대형주 상승세에 국내주식형 펀드 0.58% 상승

<해외펀드>

**美 양적 완화 축소와 시리아 사태로 인해
해외주식펀드 하락**

<현금유입>

대부분 유형펀드 자금 순유출

<변액보험>

변액보험,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상승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2013년 8월 국내펀드 동향

대형주 상승세에 국내주식형 펀드 0.58% 상승

주식형 펀드 성과

국내주식펀드
8월 한달 0.58% 상승

8월 국내주식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동안 0.64% 상승했다.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와 아시아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로 하락했던 코스피지수가 국내 경상수지 흑자 지속 호재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했다. 이에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0.58% 상승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9월 2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2013년 8월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58%로 나타났다.

K200인덱스펀드 1.71%
일반주식펀드 0.08%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K200인덱스펀드가 1.71% 상승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 동 기간 외국인 자금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등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쏠리며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을 기록했다. 과거 경기 모멘텀 상승 시기에 코스피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한 운수장비, 기계 등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으로 한 달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배당주식펀드는 0.09%의 수익률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주식펀드는 0.08% 상승했다. 중소형주식펀드는 -2.68%로 가장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중소형주식펀드 -2.68%

혼합형펀드 성과를 살펴보면, 일반주식혼합펀드는 0.39%의 성과를 보였다. 일반채권혼합펀드는 0.10% 상승했다. 절대수익추구형 중 시장중립펀드는 0.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채권알파펀드는 0.24%, 0.17%씩 상승했다.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1,374	327,937	0.08	-4.31	1.69	-3.29
	중소형주식	113	20,875	-2.68	-6.08	8.94	4.04
	배당주식	110	22,154	0.09	-3.31	13.49	5.44
	K200인덱스	215	132,724	1.71	-3.64	1.38	-4.65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44	20,038	0.39	-2.29	0.99	-1.79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407	61,874	0.10	-1.20	3.47	0.87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09	6,484	0.17	-0.00	2.01	1.45
	시장중립	37	2,205	0.24	0.45	3.96	2.67
	공모주하이일드	8	510	0.24	-0.23	1.21	0.32
KOSPI				0.64	-3.73	1.11	-3.54
KOSDAQ				-6.78	-10.58	1.65	4.11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개별 주식 펀드

순자산액(클래스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544개 국내주식형 펀드 중 1,081개 펀드가 한 달 동안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률(0.64%)을 웃돈 펀드는 781개다.

자동차, 전기전자 관련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우수한 성과를 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이 6% 이상 하락함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거나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자동차, 전기전자 관련
ETF 월간 성과 상위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상장지수[주식]’펀드가 월간 성과 5.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펀드는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 속한 회사로 이루어진 지수를 추종한다. 유럽 경기 지표 호조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조선업 관련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해 자동차에만 투자하는 2, 3위 펀드대비 초과 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GIANT현대차그룹 상장지수형[주식]’펀드와 ‘삼성KODEX자동차 상장지수[주식]’펀드는 4.19%와 4.12%로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 헬스케어관련
펀드 월간 성과 하위**

IT관련 업종의 주식에만 투자하는 ‘하나UBS IT코리아 1[주식]Class A’펀드는 3.81%로 월간 성과 상위권에 올랐다. 마찬가지로 IT업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TIGER IT상장지수[주식]’펀드도 3.68%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시장변화에 탄력적인 경기주도 업종에 투자하는 ‘한화ARIRANG경기주도주상장지수(주식)’펀드는 3.47%를 기록했다.

반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우량주에 투자하는 ‘동양FIRST스타우량상장지수(주식)’펀드가 한 달간 -9.99%의 수익률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헬스케어 관련주에 투자하는 ‘동부바이오헬스케어 1[주식]ClassA’펀드는 -9.48%로 역시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한국투자KINDEX코스닥스타 상장지수(주식)’펀드는 -8.99%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3년09월02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단위: 억원, %)		
			1개월	3개월	연초후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상장지수[주식]	108	기타인덱스	5.46	9.36	2.04
대신GIANT현대차그룹 상장지수형[주식]	251	기타인덱스	4.19	7.21	3.43
삼성KODEX자동차 상장지수[주식]	227	기타인덱스	4.12	7.79	11.51
하나UBS IT코리아 1[주식]Class A	359	테마주식	3.81	-8.02	0.19
미래에셋TIGER IT상장지수[주식]	1,075	기타인덱스	3.68	-6.66	1.32
한화ARIRANG경기주도주상장지수(주식)	182	기타인덱스	3.47	-0.34	-6.41
미래에셋TIGER베타플러스상장지수(주식)	280	기타인덱스	3.28	-2.52	
하나UBS KTOP KOSPI50상장지수[주식]	202	기타인덱스	3.18	-2.87	-3.76
현대현대그룹플러스 1[주식]종류A	1,384	테마주식	3.13	1.99	-0.66
KB삼성&현대차그룹플러스자(주식)A클래스	40	테마주식	3.05	-0.46	-4.45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동양FIRST스타우량상장지수 (주식)	125	기타인덱스	-9.99	-7.37	-0.51
동부바이오헬스케어 1[주식]ClassA	115	테마주식	-9.48	-13.60	-1.23
한국투자KINDEX코스닥스타 상장지수(주식)	140	기타인덱스	-8.99	-5.48	3.85
KStar코스닥엘리트30 상장지수(주식)	118	기타인덱스	-8.05	-1.94	15.62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 1(주식)종류F	246	테마주식	-7.71	-12.41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상장지수[주식]	1,126	기타인덱스	-7.64	-11.06	-1.64
미래에셋TIGER코스닥프리미어상장지수(주식)	399	기타인덱스	-6.97	-7.70	1.55
ING중국내수수혜국내자 1(주식)종류A	337	일반주식	-6.52	-9.30	1.40
유리스몰뮤티 [주식]C/C	249	중소형주식	-6.35	-8.85	-2.45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자 1(주식)종류C 1	3	배당주식	-6.19	-9.43	1.98

주1) 1개월 수익률순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채권형 펀드 성과

국내채권펀드
8월 한달 0.33% 상승

2013년 8월 국내 채권시장은 수급 개선과 경제지표 호조로 강세 마감했다. 이에 국내채권형 펀드 성과도 한 달간 0.33% 상승했다.

채권시장은 월초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약세를 나타냈으나 후반 들어 인도를 중심으로한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부각과 시리아 리스크로 강세 전환했다.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채권 매수재료를 작용해 결국 채권시장은 상승마감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9월 2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2013년 8월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0.33%로 나타났다.

중기채권펀드 0.37%
일반채권펀드 0.32%

중기채권펀드가 0.37% 상승하여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채권펀드가 0.32%로 그 뒤를 이었다. 우량채권펀드는 0.29%, 하이일드채권펀드는 0.25%를 기록했다. 초단기채권펀드는 0.22%로 채권형 펀드 중에서 가장 저조했다.

국내 채권형 유형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채권형	일반채권	123	16,259	0.32	0.28	2.26	1.52
	초단기채권	6	12,971	0.22	0.61	2.63	1.72
	중기채권	89	40,147	0.37	-0.19	1.67	1.15
	우량채권	36	9,713	0.29	0.27	2.05	1.36
	하이일드채권			0.25	0.69	2.89	1.98
KIS채권지수(1년 종합)		162	623,137	0.21	0.60	2.65	1.70
MMF	MMF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개별 채권 펀드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41개 채권형 펀드 중 9개를 제외한 132개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채권지수인 KIS채권지수(1년) 상승률(0.25%)을 초과한 펀드는 10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성과 상위권에는 중기채권펀드가 차지했고, 물가채에 투자하는 펀드와 레버리지펀드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기채권펀드 강세

중기채권펀드인 'KB스타막강국공채자(채권)C'펀드가 한 달간 0.49% 상승해 월간 성과 1위를 차지했다. 펀드는 6월초 기준으로 평균듀레이션이 4.01년으로 긴 편이다. 'KB변액보험 1(채권)'펀드가 0.48%로 그 뒤를 이었다. 펀드는 비은행금융채와 회사채에 투자하는 비중이 유형평균대비 높다.

'미래에셋중장기자[채권]종류C-I'펀드가 0.47%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마찬가지로 중기채권펀드인 '한화스마트중장기(채권)종류C-직판'펀드도 0.46%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반면, '이스트프링물가따라잡기자[채권]클래스C-F'펀드가 -0.15%로 월간 성과 최하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가 낮은 상승률을 보이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채권가치가 상승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손실을 입었다. 국고채 10년물 일간수익률의 2배수위를 추종하는 '우리KOSEF10년국고채레버리지상장지수[채권-파생]'펀드는 -0.10%로 저조한 성과를 냈다.

국내 채권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KB스타막강국공채자(채권)C	1,534	중기채권	0.49	-0.15	1.16
KB변액보험 1(채권)	510	중기채권	0.48	0.25	1.67
미래에셋증장기자(채권)종류C-I	1,393	중기채권	0.47	-0.22	1.43
한화스마트증장기(채권)종류C- 직판	1,002	중기채권	0.46	0.19	
삼성코리아증기채권자 1(채권) 직판	503	중기채권	0.46	0.12	
KB KStar우량회사채상장지수(채권)	634	일반채권	0.43	0.59	2.11
KStar국고채 상장지수(채권)	2,642	중기채권	0.43	0.24	1.54
하이투자증권 자 1(채권)	191	일반채권	0.43	0.03	1.41
미래에셋TIGER국채 3상장지수(채권)	638	중기채권	0.42	0.33	1.54
삼성KODEX 국고채권 상장지수(채권)	647	중기채권	0.42	0.30	1.54

국내 채권형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이스트스프링물가따라잡기자(채권)클래스C-F	22	중기채권	-0.15	-1.16	-2.38
우리KOSSEF10년국고채레버리지상장지수(채권-파생)	219	중기채권	-0.10	-4.83	-2.61
한국투자퇴직연금자 1(채권)(C)	218	일반채권	-0.04	-1.29	-0.37
한국투자퇴직연금자 1(국공채)	901	우량채권	-0.03	-1.30	-0.45
우리KOS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	186	중기채권	0.10	-2.06	-0.41
한국투자라이프플랜 1(채권)(C)	3	일반채권	0.15	-0.12	0.87
미래에셋개인연금 전환 1(채권)	112	중기채권	0.16	-0.77	0.55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 전환 1(채권)	333	일반채권	0.20	-0.22	0.44
삼성ABF Korea인덱스(채권)(A)	3,448	중기채권	0.20	-0.98	0.08
IBK그랑프리단기채(채권)	111	일반채권	0.21	0.58	1.61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주식 시장

코스피지수 0.64%

대형주 1.73%

중형주 -4.82%

소형주 -3.47%

코스닥지수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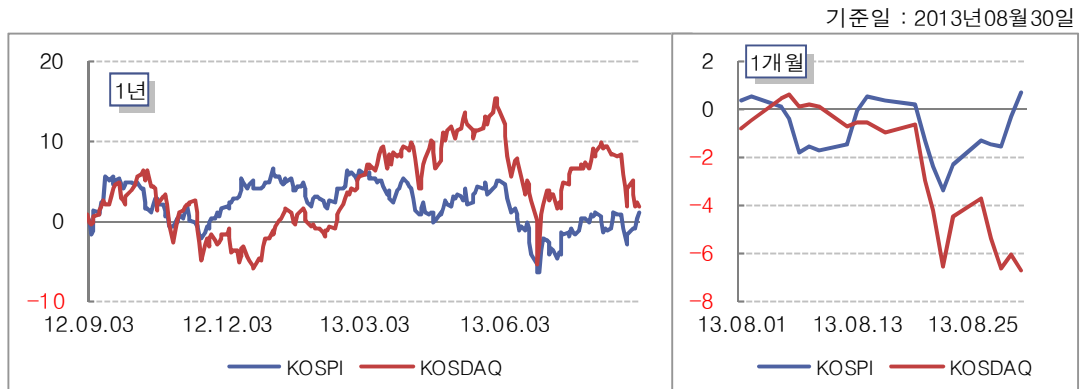
8월 한 달간 코스피지수는 0.64% 상승한 1926.36pt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출구전략 기정사실화 소식과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에 코스피 지수는 한때 1,85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월말 들어 양적완화 축소규모가 매우 점진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 소식에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국내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발표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우려 속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벨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것도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됐다.

외국인 선호업종인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전기가스업과 제조업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의약품, 증권, 섬유·의복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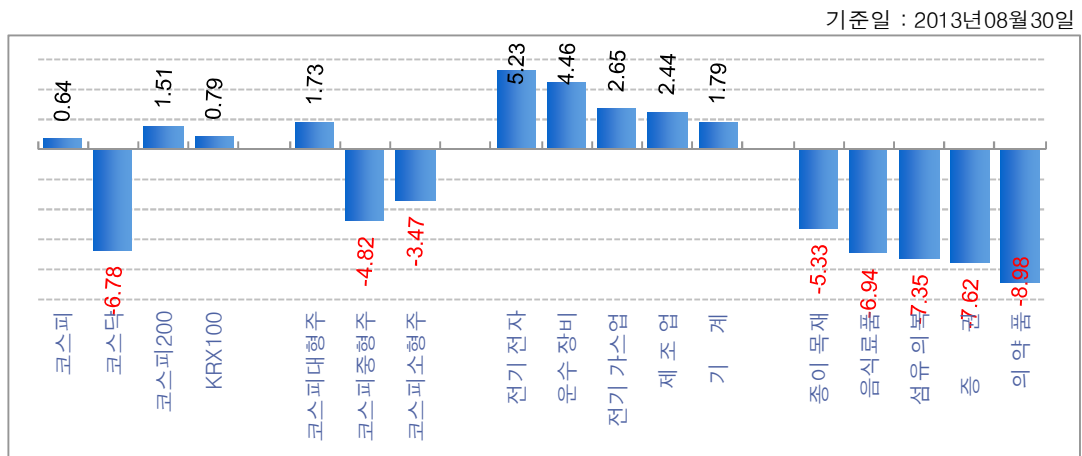
시가총액별로 살펴보면, 코스피 대형주가 1.73% 상승하여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된 업종이 주로 대형주 종목이었다.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4.82%, -3.47%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8월 동안 6.78% 하락해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올해초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안전한 투자대안으로 주목받은 코스닥시장이 글로벌 경기 상승흐름 속에서 투자 매력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가지수 추이 (1년)



거래소 주요 지수 및 업종별 상하위 1개월 수익률



자료 : KOSCOM

채권 시장

8월 국내 채권시장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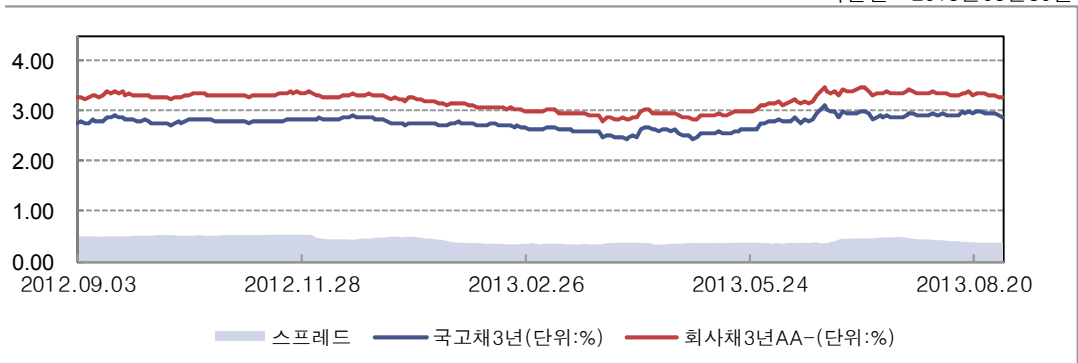
8월 채권시장은 미국의 7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부진의 여파로 강세 출발했다. 이후 기준금리 동결 및 미국의 연내 자산매입 규모 축소 의지 표명에 따른 글로벌 위험자산 강세 여건조성으로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월 후반부터 미국의 시리아 개입 가능성 증대로 중동지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신용평가사 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으로 채권시장은 강세로 전환했다.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이 부각된 것도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아지게 했다. 결국 채권시장은 수급개선과 국내외 경제지표 호조로 강세 마감했다.

2013년 8월 한 달 동안의 금리 양상을 살펴보면, 국고채 1년물은 1bp 하락한 2.66%, 3년물은 4bp 하락한 2.88%를 기록했다. 5년물은 4bp하락한 3.16%로 마감했다. 10년물만 4bp 상승한 3.53%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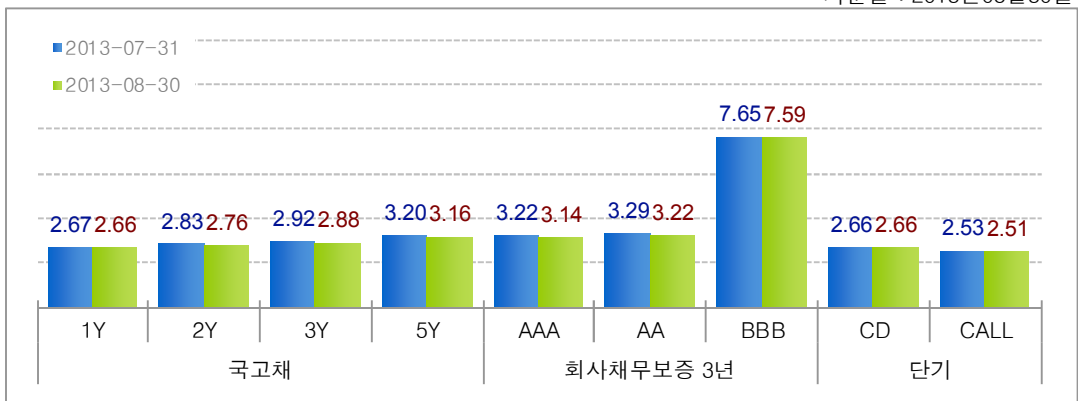
국내 주요 채권금리 추이(1년)

기준일 : 2013년08월30일



월간 채권 금리 동향

기준일 : 2013년08월30일



자료:본드웹

[황윤아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2013년 8월 해외펀드 동향

美 양적 완화 축소와 시리아 사태로 인해 해외주식펀드 하락

해외주식펀드 -0.17%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양적완화 규모 축소 우려로 인해 해외주식펀드는 하락했다. 후반 들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시리아 군사적 개입 논의 소식 또한 악재로 작용하며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식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9월 2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8월 한 달간 해외주식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0.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주식펀드의 양호한 성과덕분에 큰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대유형 기준으로 커머더티형 펀드를 제외한 해외주식형, 해외주식혼합형 등 모든 유형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초소재섹터펀드가 4.55% 상승해 해외펀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인도주식펀드가 13.54% 하락하며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고, 동남아주식펀드가 -9.33%의 수익률로 그 뒤를 이었다.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1,940	183,209	-0.17	-5.49	6.90	-4.38
	글로벌주식	93	7,439	-0.71	0.33	18.71	14.79
	글로벌신흥국주식	250	29,459	-2.26	-8.70	-1.16	-8.80
	유럽주식	69	1,895	-0.19	-0.82	18.37	10.41
	북미주식	93	3,735	-1.47	1.06	18.94	18.43
	아시아태평양주식	30	834	-1.06	-4.16	14.07	2.82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87	10,828	-2.77	-7.60	5.09	-1.66
	동남아주식	76	2,233	-9.33	-16.33	5.84	-2.56
	아시아신흥국주식	87	8,876	-3.92	-9.60	1.74	-8.68
	유럽신흥국주식	51	2,134	-2.67	-6.33	1.31	-4.53
	남미신흥국주식	59	2,802	-3.95	-15.08	-10.70	-18.04
	프론티어마켓주식	25	192	-1.74	0.84	25.97	20.47
	일본주식	73	3,496	-2.15	-2.51	40.27	24.21
	중국주식	534	94,140	2.26	-3.08	12.64	-3.21
	인도주식	68	2,697	-13.54	-24.84	-14.66	-22.43
	브라질주식	46	1,581	-4.39	-19.49	-17.03	-20.93
	러시아주식	46	3,273	-0.10	-0.64	1.47	-4.01
	에너지섹터	55	880	-0.67	-0.76	15.21	12.08
	기초소재섹터	59	3,722	4.55	-3.17	-16.91	-20.55
	소비재섹터	17	338	-0.35	-1.01	17.21	9.59
	헬스케어섹터	7	107	-0.62	1.10	25.13	23.92
	금융섹터	31	604	-3.80	-2.68	28.72	17.72
	멀티섹터	46	1,724	-1.24	-4.32	11.02	5.44
해외주식혼합형		135	24,949	-2.31	-3.12	7.92	5.94
해외채권혼합형		179	6,431	-1.38	-3.47	1.70	-1.76
해외채권형		274	70,346	-1.13	-3.11	2.54	-1.48
해외부동산형		48	11,611	-1.37	-2.11	7.82	3.83
커머더티형		100	3,899	5.80	0.71	-11.19	-6.74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중국주식펀드 2.26%	해외주식펀드 세부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주식펀드가 2.26% 상승해 8월 한 달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표개선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도시 철도건설 프로젝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은행 설립 등이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켜 상해 A 지수는 5.26%의 큰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홍콩H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미국의 시리아 공습 우려로 인해 항셱(H) 지수는 1.73%의 소폭 상승을 보였다.
러시아주식펀드 -0.10%	러시아주식펀드는 7월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0.10% 하락했다. 러시아증시는 상반기 수출 둔화, 무역흑자 규모 감소 등의 악재가 겹치며 하락했다. 정부의 석유 수출세율 인상 발언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요의 감소 전망 또한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하락폭을 확대했다.
유럽주식펀드 -0.19%	8월초 유럽증시는 유럽 내의 경제지표 개선과 기업 실적 호조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택지표 호조, 중국의 수출입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유로존의 성장률 지표 또한 예상을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후반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양적완화 규모 축소와 시리아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해 상승폭을 내주며 하락했다. 유럽주식펀드는 -0.1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하락 반전했다.
북미주식펀드 -1.47%	7월 강세를 보였던 북미주식펀드는 -1.47%의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북미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등 호재와 악재가 서로 공존하며 반등과 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양적완화 규모 축소 합의와 서방국가들의 시리아 군사적 개입 논의 소식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며 하락했다.
일본주식펀드 -2.15%	엔화 강세 여파로 인해 일본주식펀드는 2.15% 하락했다. 연속된 엔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매도세가 집중된 수출주가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 공무원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소식과 아베 총리의 법인세 인하 검토 보도로 인해 일본증시는 잠시 반등했으나, 시리아 사태가 발생하며 엔화가치가 다시 상승해 하락을 면치 못했다.
브라질주식펀드 -4.39%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PMI 등 경제지표 부진까지 겹치며 브라질증시는 악세로 시작했다. 중반 들어 기업들의 실적개선과 해외 경기불안 진정 등이 호재로 작용하였으나, 단기 차익실현의 부담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브라질주식펀드는 7월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4.3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도주식펀드 -13.54%	인도주식펀드는 -13.54%의 수익률로 소유형 기준 월간 최저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 주요 기관이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경제지표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인도증시는 하락했다. 이후 수출개선으로 반등했으나, 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경상수지 적자와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악재로 작용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정부가 루피화 가치의 급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라 밝혔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막진 못했다.
기초소재섹터펀드 4.55%	섹터펀드별로 살펴보면 기초소재섹터펀드가 4.55%의 높은 수익률로 8월 한 달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기초소재섹터펀드를 제외한 다른 섹터펀드들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섹터펀드가 -3.80%의 큰 하락을 보였다.
커머더티형 펀드 5.80%	해외주식혼합형 펀드와 해외채권혼합형 펀드는 각각 -2.31%, -1.38%의 수익률을 내며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채권형 펀드와 해외부동산형 펀드 또한 하락했다. 반면 커머더티형 펀드는 유일하게 5.80%의 높은 플러스 수익률을 내며 선전했다.

개별 해외 펀드 성과

**1,092개 해외주식펀드
중 483개 펀드 플러스
성과**

순자산액(클래스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092개 해외주식펀드 중 483개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다.

중국 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경제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중국본토에 투자하는 중국주식펀드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주식펀드들은 월간 성과 상위 10개 펀드 중 7개를 차지했다.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H)(A)’ 펀드 8.56%

성과상위 펀드 중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H)(A)’ 펀드가 8.5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개별해외주식펀드 중 최고 성과를 냈다. ‘삼성중국본토레버리지자 1[주식-파생재간접]_A’ 펀드 또한 7.46%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피델리티인디아자(주식)종류A’ -14.45%로
최하위**

반면,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인도주식펀드들이 하위권에 위치했다. ‘피델리티인디아자(주식)종류A’ 펀드가 -14.4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 1(주식)종류A’ 등 총 8개의 인도주식펀드들이 하위권에 속하면서 인도주식펀드의 약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3년09월02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단위: 억원, %)		
			1개월	3개월	연초후
블랙록월드골드자(주식)(H)(A)	92	기초소재섹터	8.56	0.80	-30.32
삼성중국본토레버리지자 1[주식-파생재간접]_A	217	중국주식	7.46	-18.11	
신한BNPP골드 1[주식](종류A)	169	기초소재섹터	5.96	-3.43	-27.30
JP모간차이나자(주식)A	126	중국주식	5.50	5.27	12.52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H)(A)	1,303	기초소재섹터	5.38	-3.03	-23.61
KTB차이나스타A주자H[주식]종류CI	459	중국주식	4.86	-0.91	2.24
현대차이나A주자 1[주식-재간접]종류A	87	중국주식	4.71	-9.20	-8.53
KB차이나A주식자(주식-재간접)클래스A	374	중국주식	4.48	-7.13	-3.61
신한BNPP차이나본토ETF자 1[주식-재간접](종류A 1)	654	중국주식	4.45	-10.09	-11.58
한국투자셀렉트중국본토ETF자 H(주식-재간접)(A)	311	중국주식	4.40	-9.49	-9.53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피델리티인디아자(주식)종류A	338	인도주식	-14.45	-23.25	-19.63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 1(주식)종류A	608	인도주식	-14.42	-25.23	-21.19
IBK인디아인프라A[주식]	91	인도주식	-14.41	-34.02	-37.36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 1(주식)종류A	576	인도주식	-14.30	-25.31	-21.31
KB아세안 자(주식)A	152	동남아주식	-13.51	-23.84	-8.09
KB인디아 자(주식)A	205	인도주식	-12.01	-26.29	-27.34
신한BNPP봉쥬르인디아 자(H)[주식](종류A 1)	132	인도주식	-11.16	-18.98	-19.19
삼성인디아자 2[주식](A)	4	인도주식	-10.99	-21.58	-16.80
이스트스프링인디아자(UH)[주식]클래스A	0	인도주식	-10.35	-23.63	-20.64
삼성아시아Top-Tier자UH[주식]_A	99	아시아신흥국주식	-9.48	-15.22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김성만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대부분 유형펀드 자금 순유출

공모펀드 자금동향

8월 공모펀드 설정액
(ETF, 재투자 제외)
2조 5,185억원 감소

2013년 8월 설정액 기준으로 공모펀드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MMF에서 자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MF는 1조 3천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기타펀드와 혼합형 펀드는 각각 783억원, 50억원의 자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MMF, 1조 2,976억원
주식형, 7,585억원
채권형, 5,457억원
설정액 감소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의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펀드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3년 9월 2일 현재 178조 2,955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한 달 동안 2조 5,185억원의 설정액(ETF, 재투자 제외)이 감소했고, 순 현금흐름으로는 2조 2,838억원이 빠져나갔다.

유형별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달에 이어 MMF에서 1조 3,247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지난달 6천억원이 넘는 현금유출을 보였던 채권형 펀드 또한 이번 달에 5,436억원의 감소를 보였다.

해외펀드는 모든 유형의 펀드에서 자금유출을 보였다. 전체 해외펀드 설정액은 1조 985억원 감소했고, 현금흐름도 9,029억원 순유출됐다.

공모펀드 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주식형	4,658	810,768	-7,585	710,681	42.35	-5,150
혼합형	1,445	147,322	50	142,861	8.51	221
채권형	586	140,338	-5,457	138,962	8.28	-5,436
MMF	175	615,203	-12,976	623,321	37.15	-13,247
기타	714	69,324	783	62,133	3.70	773
총계	7,578	1,782,955	-25,185	1,677,958	100.00	-22,838
국내주식형	2,520	576,490	-2,205	530,799	31.63	-1,441
국내혼합형	1,106	111,681	984	111,341	6.64	1,053
국내채권형	277	68,451	-1,030	68,880	4.10	-1,129
국내MMF	175	615,203	-12,976	623,321	37.15	-13,247
국내기타	477	40,024	1,026	36,130	2.15	953
국내소계	4,555	1,411,850	-14,200	1,370,471	81.67	-13,810
해외주식형	2,138	234,277	-5,380	179,881	10.72	-3,709
해외혼합형	339	35,641	-934	31,520	1.88	-832
해외채권형	309	71,887	-4,427	70,082	4.18	-4,307
해외기타	237	29,300	-243	26,003	1.55	-181
해외소계	3,023	371,105	-10,985	307,486	18.33	-9,029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ETF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주3) 혼합형은 국내외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을 포함

주4) 기타는 국내외 기타, 부동산형, 커머더티형을 포함

국내 주식펀드 자금동향

국내주식형 펀드 설정액
2,205억원 감소

국내주식형 펀드 설정액(ETF, 재투자 제외)은 2,205억원 감소한 57조 6,490 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흐름으로는 1,441억원이 순유출됐다. 배당주식펀드 만이 자금유입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유형의 펀드들은 모두 자금이 유출됐다.

배당주식펀드
1,614억원 증가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유형의 설정액이 감소한 가운데 배당주식펀드 에서만 1,614억원의 자금 증가를 보였다. 반면 일반주식펀드는 2,128억원의 가장 많은 자금 감소를 보였다. K200인덱스펀드와 테마주식펀드에서도 각각 959억원, 417억원의 자금이 감소됐다.

국내주식펀드의 순자산액은 전월 보다 145억원 증가한 53조 799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주식펀드의 순자산액이 1천억원 이상 늘어나면서 자산감소를 피 할 수 있었다.

개별 펀드별로 살펴보면, 대표펀드기준(클래스펀드 합산)으로 'KB한국대표그 룽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 3' 펀드가 1,056억원으로 국내주식펀드 중 월간 자금유입 규모 최상위에 자리했다. 이 펀드는 대형혼합주 위주로 투자 하며 지난 1, 3년의 수익률에서 모두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양호한 성과를 보 였다.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 3' 펀드가 402억원 증가하 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KB한국대표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 2' 펀드는 839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되며 약세를 보였다.

국내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일반주식	1,517	366,859	-2,128	333,006	62.74	-1,549
중소형주식	120	20,078	-187	20,879	3.93	-184
배당주식	119	22,982	1,614	22,234	4.19	1,631
테마주식	369	70,971	-417	65,852	12.41	-362
K200인덱스	225	65,556	-959	62,437	11.76	-865
기타인덱스	170	30,045	-128	26,391	4.97	-112
총 계	2,520	576,490	-2,205	530,799	100.00	-1,441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ETF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해외 주식펀드 자금동향

해외주식형 설정액
(ETF, 재투자 제외)
5,380억원 감소

해외주식펀드 설정액(ETF, 재투자 제외)은 8월 한 달 동안 5,380억원 감소한 23조 4,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순현금유출규모는 3,70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 이어 중국주식펀드와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의 설정액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주식형 펀드의 자금이탈이 지속된 반면 유럽주식펀드, 북미주식펀드, 글로벌주식펀드 등의 설정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주식펀드,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
자금이탈지속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지역별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일본, 북미, 유럽, 글로벌주식 등의 유형을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 자금이 순유출됐다. 중국주식펀드는 2,547억원으로 자금 유출 규모가 가장 컸고,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가 1,12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유럽주식펀드는 47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보였고, 글로벌주식펀드와 북미주식펀드 또한 각각 398억원, 391억원의 순유입이 있었다.

해외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권역별						
글로벌주식	121	7,646	373	7,605	4.23	398
유럽주식	77	2,135	477	1,908	1.06	478
북미주식	100	3,288	388	3,589	2.00	391
아시아태평양주식	33	969	-22	843	0.47	-19
아-태주식(ex J)	100	12,604	-419	10,849	6.03	-340
동남아주식	84	2,454	-156	2,240	1.25	-150
글로벌신흥국주식	264	40,138	-1,498	29,412	16.35	-1,128
아시아신흥국주식	87	12,429	-386	8,876	4.93	-269
유럽신흥국주식	59	3,763	-93	2,144	1.19	-58
남미신흥국주식	62	3,968	-115	2,746	1.53	-79
프론티어마켓주식	28	261	14	194	0.11	9
기타신흥국주식	3	16	-0	8	0.00	-0
섹터별						
에너지섹터	60	1,394	-25	882	0.49	-31
기초소재섹터	59	6,965	-143	3,722	2.07	-76
소비재섹터	17	319	1	338	0.19	1
헬스케어섹터	12	112	10	112	0.06	10
금융섹터	31	800	-28	604	0.34	-22
공공서비스섹터	2	32	-1	27	0.02	-1
멀티섹터	56	1,844	-50	1,745	0.97	-49
국가별						
일본주식	83	4,995	109	3,455	1.92	144
호주주식	5	5	-0	5	0.00	-0
중국주식	567	113,778	-3,148	90,819	50.49	-2,547
인도주식	76	4,681	-344	2,711	1.51	-217
브라질주식	58	2,505	-55	1,568	0.87	-35
러시아주식	50	6,912	-268	3,274	1.82	-120
타이완주식	13	18	-3	17	0.01	-3
말레이시아주식	4	8	-0	7	0.00	-0
독일주식	3	29	22	29	0.02	22
기타국가주식	24	208	-21	151	0.08	-19
총 계	2,138	234,277	-5,380	179,881	100.00	-3,709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ETF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2013년 8월 신규 설정 펀드

74개 공모펀드

신규설정

전체 설정액

4,334억원

8월 한 달 동안 74개 펀드가 신규설정되었으며, 이들 펀드의 설정액은 2013년 9월 2일 현재 4,3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내펀드 설정액은 3,775억원, 해외펀드 설정액은 5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설정된 공모펀드의 총 설정액 중 MMF가 2,254억원으로 전체 설정규모 중 무려 52%나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1억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증가율이 확연히 낮아졌다.

신규설정펀드 중 'LS법인MMF 3(국공채)' 펀드가 설정액 1,254억원으로 8월에 설정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동펀드 포함 MMF 2개가 상위권에 자리했으며, 이 외에 설정액 상위 10개 펀드 중 기타유형(특별자산 및 ELF포함) 펀드가 6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해외주식혼합형, 주식형 펀드가 각각 1개씩 차지했다.

[김성만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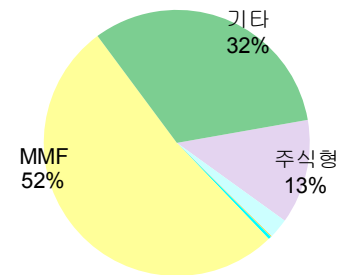
08월 신규펀드 설정현황 (공모)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국내투자		해외투자		전체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주식형	110	10	441	17	551	27
주식혼합형	6	3	100	1	106	4
채권혼합형	3	3	0	1	4	4
채권형			1	11	1	11
절대수익추구형	16	2			16	2
부동산형						
MMF	2,254	4			2,254	4
기타	1,386	15	17	7	1,403	22
커머더티형						
운용사 전체	3,775	37	559	37	4,334	74

신규 펀드 시장 비중 현황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체계에 의함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유형내 ETF는 제외, 클래스 펀드 기준 산출

주3) 2013년 1월 동안 설정된 펀드로 설정액은 12월 3일 기준임

주4) CDSC관련 과거성과연결 클래스펀드는 제외.

08월 신규설정 공모펀드 설정액 상위 펀드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펀드유형
LS법인MMF 3(국공채)	LS자산운용	20130806	1,254	MMF
한국투자신종법인용MMF 1(C-J)	한국운용	20130813	999	MMF
신한BNPP프리미어K- 3[ELS-파생]	신한BNPP	20130826	235	기타
신한BNPP프리미어HK-37[ELS-파생]	신한BNPP	20130812	198	기타
교보약사프리미어2IndexHK-15(ELS-파생)	교보약사운용	20130826	163	기타
신한BNPP프리미어HK-36[ELS-파생]	신한BNPP	20130805	162	기타
신한BNPP프리미어K- 1[ELS-파생]	신한BNPP	20130812	157	기타
신한BNPP프리미어K- 2[ELS-파생]	신한BNPP	20130819	142	기타
하이글로벌멀티에셋70자[주혼-재간접]종류C-F	하이운용	20130829	100	해외주식혼합형
신영고배당자(주식)I형	신영운용	20130821	100	주식형

주1) 유형체계 :제로인 유형에 의한 분류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상위 펀드

변액보험,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상승

변액보험 국내펀드 성과

8월 한 달간 국내주식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 이에 변액보험 국내펀드도 모든 유형의 수익률이 상승했고, 한국인덱스펀드가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변액보험 국내주식펀드

0.73%

9월 2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2013년 8월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변액보험 주식형 펀드수익률은 0.73%를 기록했다. 이는 코스피지수 수익률(0.64%)을 0.09%포인트 초과하는 수치다.

변액보험 일반주식펀드

0.65%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에서 한국인덱스펀드가 1.34%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월간성과를 냈다. 기타주식펀드가 1.00%를 기록했고, 일반주식(6080)펀드가 0.65% 상승했다. 일반주식펀드와 가치주식펀드는 0.56%, 0.51%씩 상승했다.

혼합형펀드 성과를 살펴보면, 일반주식혼합펀드는 0.57% 상승했다. 일반채권 혼합펀드와 채권알파펀드는 0.48%, 0.45%씩 상승했다.

변액보험 국내채권펀드

0.32%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부각과 시리아 리스크로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국내채권시장은 강세로 마감했다. 국고채 전 기간물의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변액보험채권펀드들은 한 달 동안 0.32%의 성과를 냈다. 변액일반채권펀드가 0.33% 상승해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중장기채권펀드와 우량채권펀드는 0.26%씩 상승했다. 초단기채권펀드는 0.1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주식형	일반주식	48	75,121	0.56	-3.73	-4.55	1.35
	가치주식	18	19,975	0.51	-3.57	-0.01	9.94
	한국인덱스	33	34,365	1.34	-3.74	-6.28	0.40
	기타주식	10	7,226	1.00	-3.35	-6.06	-0.49
	일반주식(6080)	24	19,100	0.65	-2.85	-3.28	2.02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02	191,016	0.57	-2.04	-2.56	1.51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91	154,956	0.48	-1.20	-1.51	1.56
	채권알파	16	21,140	0.45	-1.70	-3.10	-0.55
KOSPI				0.64	-3.73	-4.94	1.11
KOSDAQ				-6.78	-10.58	-3.57	1.65
채권형	변액일반채권	84	99,988	0.33	-0.01	0.17	1.83
	초단기채권	20	4,619	0.18	0.48	1.03	2.25
	중장기채권	5	4,838	0.26	-0.24	-0.06	1.22
	우량채권	1	189	0.26	-0.08	0.26	1.68
KIS채권지수(1년 종합)				0.25	0.69	1.38	2.89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해외주식펀드, 미국의 시리아 공습 우려로 하락

변액보험 해외펀드 성과

해외주식형 -2.22%

중국주식펀드 2.39%

아시아신흥국주식펀드
-4.93%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우려와 미국 양적 완화 조기종료 우려로 변액보험 해외주식펀드는 하락했다. 변액보험 해외주식형 펀드의 2013년 8월 수익률은 -2.22%를 기록했다.

경제지표 호조와 경기부양 기대로 중국주식펀드가 2.39% 상승하여 소유형 기준으로 해외펀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중국주식펀드의 투자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해외주식형 펀드는 중국시장의 상승으로 변액보험 해외주식형 대비 높은 수익률(-0.17%)을 기록했다. 유로존 성장을 지표가 호조를 보여 유럽주식펀드도 0.03% 상승했다. 지역별 기준으로 이들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월간 수익률 하락폭이 가장 컸던 유형은 4.93% 하락한 아시아신흥국주식펀드다. 남미신흥국주식펀드는 -3.73%를 기록했고, 신흥국주식펀드는 3.68% 하락했다.

섹터펀드 중에서는 시리아 리스크로 원유값 상승 우려로 글로벌에너지섹터펀드가 1.11% 상승하여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 글로벌소비재섹터펀드가 -0.72%를 기록했고, 글로벌산업섹터는 -2.79%를 기록했다.

금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 상승으로 커머더티형은 2.34% 상승했다. 혼합형 중 해외주식혼합형은 -1.94%, 해외채권혼합형은 -1.16%를 기록했다. 해외채권형은 -1.32%, 해외부동산형은 -1.52%의 수익률을 냈다.

변액보험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해외주식형		73	15,594	-2.25	-7.44	-5.15	3.54
	글로벌주식	14	2,369	-1.88	-1.98	4.75	10.64
	신흥국주식	14	2,941	-3.68	-9.69	-10.31	-2.16
	유럽주식	3	89	0.03	1.43	8.48	21.54
	아시아주식	1	263	-0.63	-3.08	-0.79	13.30
	아시아신흥국주식	11	4,800	-4.93	-11.71	-9.30	-1.41
	유럽신흥국주식	3	140	-3.21	-8.06	-7.00	-1.98
	EMEA	1	110	-0.86	-2.63	2.92	12.23
	프론티어마켓주식	1	22	-1.24	-2.19	2.79	16.50
	남미신흥국주식	3	189	-3.73	-13.20	-16.24	-8.56
	일본주식	1	49	-1.88	-3.07	12.53	37.40
	미국주식	3	278	-2.71	-0.77	11.31	15.31
	중국주식	8	3,531	2.39	-3.92	-1.88	10.78
	러시아주식	1	15	-2.30	-7.05	-8.86	0.02
	글로벌에너지섹터	2	121	1.11	-0.86	1.14	4.51
	글로벌산업섹터	1	60	-2.79	-2.41	-0.06	7.70
	글로벌소비재섹터	1	288	-0.72	1.74	10.99	16.05
	글로벌멀티섹터	5	328	-3.50	-7.67	-5.19	-0.31
커머더티형		10	485	2.34	0.54	-2.04	-3.97
해외주식혼합형		75	28,246	-1.94	-4.07	-1.30	3.92
해외채권혼합형		22	8,849	-1.16	-2.81	-0.97	3.60
해외채권형		31	6,702	-1.32	-3.20	-1.22	2.51
해외부동산형		2	246	-1.52	-3.69	-1.94	3.52

주 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 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8월 변액보험 순자산액 8천억원 이상 증가

변액보험 펀드 동향

8월 변액보험 순자산액
8,033억원 증가한
76조 8,269억원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9월 2일 기준으로 변액보험 순자산액을 조사한 결과 76조 8,269억원으로 집계돼 7월말보다 8,03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펀드는 9천억원이 넘는 순자산액이 증가한 반면, 해외펀드에서 1천억원 가량의 순자산액이 감소했다. 한 달간 국내펀드 순자산액은 9,231억원 증가한 68조 4,381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의 순자산액 증가가 3,104억원으로 가장 컸고, 주식형에서도 2,869억원 감소했다.

해외펀드 순자산액은 1,198억원 감소한 8조 3,8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혼합형에서 600억원의 순자산액이 감소가 발생했다. 해외주식형은 413억원의 순자산액이 감소했다.

순자산액 기준으로 주식혼합펀드가 전체 변액보험의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채권혼합형 27%, 주식형 24%, 채권 16%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윤아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13년09월02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변액보험 시장현황(순자산액 기준)
		7월말	8월말	증감	
주식형	154	167,453	170,322	2,869	
주식혼합형	125	211,842	213,507	1,665	
채권혼합형	135	186,958	188,505	1,546	
채권형	142	108,553	111,658	3,104	
기타	17	343	390	46	
국내소계	573	675,150	684,381	9,231	
해외주식형	94	16,089	15,676	-413	
해외주식혼합형	92	42,882	42,282	-600	
해외채권혼합형	30	14,360	14,169	-191	
해외채권형	43	6,772	6,800	28	
해외부동산형	2	249	246	-3	
커머더티형	12	473	491	18	
해외기타	13	4,262	4,224	-38	
해외소계	286	85,086	83,888	-1,198	
전체	859	760,236	768,269	8,033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퇴직연금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국내 주식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3년09월02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한화 VA 성장주식형 II	549	일반주식	1.91	-2.81	-2.73	1.16
ING VUL 코리아인덱스파생상품형	2,015	한국인덱스	1.74	-3.36	-5.72	1.37
메트라이프 VUL종신 인덱스주식형	1,340	한국인덱스	1.73	-3.70	-6.17	0.83
푸르덴셜 VUL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345	한국인덱스	1.69	-3.70	-6.15	0.88
메트라이프 VA 인덱스주식형	2,727	한국인덱스	1.68	-3.60	-6.35	0.26
메트라이프 VUL 인덱스주식형	2,520	한국인덱스	1.68	-3.62	-6.39	0.15
ING VUL종신 인덱스주식형	96	한국인덱스	1.67	-3.29	-5.22	2.20
우리아비바 VUL 주식성장형	79	일반주식	1.66	-3.62	-5.37	1.06
삼성 VUL종신 배당주식형	102	가치주식	1.66	-1.56	-4.79	1.20
흥국 VA 인덱스 주식형	129	한국인덱스	1.62	-3.17	-5.35	1.67

변액보험 국내 주식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동부 변액종신&변액CI종신 인덱스혼합형	104	일반주식혼합	1.38	-1.89	-3.44	1.93
동부 VA 인덱스혼합형	60	일반주식혼합	1.30	-2.02	-3.70	1.45
삼성 VA 10대그룹주식혼합형	252	일반주식혼합	1.25	-0.90	-1.95	1.54
흥국 변액CI 흥국보장성인덱스성장혼합형	146	일반주식혼합	1.19	-2.09	-3.43	1.59
동부 VUL 인덱스혼합형 II	73	일반주식혼합	1.16	-2.27	-3.87	1.12
동부 VA 인덱스혼합형	174	일반주식혼합	1.16	-2.21	-3.78	1.20
한화 VA 알파인덱스혼합형 II	889	일반주식혼합	1.16	-1.71	-2.74	1.77
삼성 VUL 그로스50혼합형	323	일반주식혼합	1.13	-1.40	-1.17	3.31
한화 VUL 알파인덱스혼합형	116	일반주식혼합	1.08	-1.51	-3.32	1.03
KDB VUL&VA 인덱스50혼합형	66	일반주식혼합	1.07	-1.55	-2.79	1.79

변액보험 국내 채권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한화 VA 인덱스혼합형 II	3,144	일반채권혼합	0.93	-1.13	-2.12	1.75
KDB VUL&VA 인덱스혼합형	323	일반채권혼합	0.91	-1.00	-2.25	0.14
흥국 변액CI 인덱스혼합형	93	일반채권혼합	0.89	-1.43	-2.31	1.58
KB VUL&VA 혼합형	126	일반채권혼합	0.80	-0.41	-1.84	-0.28
삼성 변액종신 혼합형	5,314	일반채권혼합	0.73	-1.12	-0.69	2.53
삼성 VA 그로스혼합형	2,745	일반채권혼합	0.72	-1.02	-0.67	2.68
KB VUL&VA 인덱스혼합형	1,050	일반채권혼합	0.69	-1.20	-2.29	0.54
동양 변액종신 혼합형	145	일반채권혼합	0.67	-0.64	-1.74	-0.13
하나HSBC VA 주식혼합형1	726	일반채권혼합	0.67	-1.63	-2.65	-0.25
흥국 VA 인덱스혼합형	230	일반채권혼합	0.66	-1.33	-2.14	0.90

변액보험 국내 채권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교보 VUL 채권형	787	변액일반채권	0.48	0.14	0.42	2.31
카디프 VUL&VA 베스트채권형펀드	360	중장기채권	0.43	-0.04	0.02	1.61
동양 VUL종신&변액CI 채권형II	217	변액일반채권	0.43	0.13	0.33	1.86
IBK연금 VA 채권형	134	변액일반채권	0.42	0.51	0.90	2.86
교보 VUL종신 채권형	404	변액일반채권	0.41	0.08	0.27	2.03
알리안츠 VUL 채권형	242	변액일반채권	0.40	0.32	0.55	2.17
알리안츠 변액종신 채권형	143	변액일반채권	0.40	0.31	0.53	2.17
한화 VUL종신 채권형	488	변액일반채권	0.40	0.10	0.34	2.07
흥국 VA 인덱스 채권형	242	변액일반채권	0.38	0.23	0.45	2.07
한화 변액종신 채권형	1,390	변액일반채권	0.38	0.05	0.22	1.90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

변액보험 해외 주식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3년09월02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AIA VUL 중국주식형	317	중국	3.62	-7.06	-9.04	7.48
알리안츠 VA 코-원자재인덱스형	73	글로벌멀티섹터	2.67	-1.96	-2.02	1.96
PCA VUL A plus 차이나	1,870	중국	2.53	-5.19	-1.15	9.28
라이나 VUL 차이나주식형	126	중국	2.30	0.65	1.29	13.04
카디프 VUL 봉쥬르차이나재간접형	926	중국	2.02	-1.93	-1.57	12.77
신한 VUL&VA 봉쥬르차이나주식형	254	중국	1.75	-1.29	-1.27	12.42
ACE VUL 천연자원 펀드 I	77	글로벌에너지섹터	0.72	-1.40	1.57	3.33
메트라이프 VUL 유럽주식형	64	유럽	0.17	1.92	8.96	22.04
알리안츠 VA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119	글로벌	-0.52	-2.94	-2.11	8.47
카디프 VUL&VA 아시아태평양ETF	263	아시아	-0.63	-3.08	-0.79	13.30

변액보험 해외 주식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동양 VUL&VA 글로벌커머리티혼합성장형	115	기타해외	1.09	0.01	-2.09	-0.44
ING VA 아시아고배당성장형	72	아시아신흥국	-0.11	-3.02	-3.80	1.96
ING VA 아시아퍼시픽성장추구형	212	아시아신흥국	-0.15	-3.89	-4.61	0.83
KB VA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형	106	신흥국	-0.47	-1.73	-1.64	1.39
한화 VUL 글로벌혼합형	118	글로벌	-0.48	-0.21	2.98	10.01
동양 VUL&VA 브릭스70주식성장형	133	신흥국	-0.57	-4.21	-4.49	2.11
미래에셋 VUL종신 글로벌컨슈머섹터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439	글로벌	-0.63	0.90	6.90	10.71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15	61	글로벌	-0.70	-1.38	0.28	3.80
미래에셋 VA 글로벌컨슈머섹터혼합자산배분형	511	글로벌	-0.71	-0.09	4.71	7.93
미래에셋 변액CI종신 글로벌컨슈머섹터주식안정성장형	86	글로벌	-0.74	0.58	6.49	9.99

변액보험 해외 채권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ING VUL 해외혼합성장형	224	글로벌	0.09	-0.65	2.13	5.34
삼성 VUL&VA 글로벌혼합형	256	글로벌	-0.08	-0.94	0.91	5.07
삼성 VA 더블유인덱스30혼합형	842	글로벌	-0.10	0.20	2.43	6.69
ING VA 아시아고배당성장혼합형	511	기타해외	-0.11	-2.79	-3.33	5.40
KB VUL&VA 글로벌혼합형	71	글로벌	-0.30	-0.75	0.89	4.00
ING VA 선진국주식혼합형	89	글로벌	-0.40	-0.72	1.51	5.07
미래에셋 VA 차이나안정자산배분형	345	중국	-0.48	-2.07	-0.90	4.12
신한 VA 글로벌이머징혼합안정형	303	신흥국	-0.67	-2.19	-2.07	1.54
ING VA 이머징마켓혼합형	127	신흥국	-0.82	-3.11	-4.12	0.18
미래에셋 VA 코친디아포커스7주식안정자산배분형	851	아시아신흥국	-0.94	-2.24	-0.77	2.82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